세월호 참사에 울고… 에볼라 공포에 떨고

◀국내 국제▶

2014년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 빚은 '세월호 침몰' 이라는 대형 참사와 어이없는 구조작업 부실로 전 국민이 분노와 슬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가운데 6·4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지구촌에서는 에볼라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시리아·이라크 내에서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이슬람국가'(IS)의 공격으로 하루도 총성이 그치지 않았다.

광주일보는 다음과 같이 올해 10대 국내뉴스 및 10대 국제뉴스를 선정했다.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을 2014년 대한민국의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세월호는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 후 침몰했다. 과적에 묶기도 부실한 화물이 쏠린 것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온 국민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믿고 참사 실황을 지켜봤기에 충격은 더 컸고, 이 사고로 295명이 숨졌다. 이에 더해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지이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공식 방한 목적은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이었다.

하지만 교황은 4박5일, 100시간의 체류 기간에 공식 방한 행사 외에 사회의 약자들을 가까이서 보듬는 모습을 보여줬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를 위해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유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유출 논란은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 세계일보의 청와대 내부문건 입수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정권 심장부의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사고를 뛰어넘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간의 '권력 암투설'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문건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세계일보와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되는 경찰 출신 전직 행정관을 검찰에 고소 및 수사 의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軍 잇단 대형 사건·비리

후임병 폭행 사망, 총기 난사, 병영 내 잇단 성추행, 방산비리 등 유난히 많은 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연천의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선임병 4명으로부터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4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6월에는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이 숨졌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각종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이후 잇따라 터져 나왔다. 17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총리후보자 낙마 인사 파동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지명된 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발생 11일 만인 4월27일 사의를 표명하자, 5월22일 후임으로 한때 '국민검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6월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대타' 총리 후보로 지명을 받았지만 지명 다음날 공개된 과거 교회 강연 영상 발언이 거센 역사관 논란에 휘말리면서 낙마했다.

수능 출제 오류 교육현장 혼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에 대해 10월16일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출제오류를 주장한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이 끝난 지 1년 만에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대입결과가 뒤바뀐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채점을 통해 1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의 세계지리 등급이 올랐고,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길이 열렸다.

6·4 지방선거 여야 무승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9곳에서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텃밭 부산을 사수하며 선방했다. 새정치연합은 믿었던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석권하며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쓰러진 이건희 회장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이 5월10일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CPR)과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7개월째 입원 중이다.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력인 삼성전자는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경험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억원으로 떨어져 10조원을 넘긴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불황 장기화와 무상복지 논란

내수·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 등이 겹치면서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5~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011년부터 지속한 3%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대에 그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졌다.

원전 고장·사고…국민 불안

올 한해 국내 원전에서는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고, 원전 보안 유지에도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다. 10월 17일 영광 한빛원전 3호기에서는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결함으로 방사성 물질 일부가 외부 환경으로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고장, 사고와 함께 원전 보안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 소속 직원 18명 등 직원 19명이 외부 용역업체에 내부 전산망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건넨 것이다.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지명자가 사의를 표명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로 거론돼 온 정윤회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방역당국 직원들이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쏴 해산시키고 있다.

전세계 에볼라 공포 확산

지난 3월 이후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을 중심으로 에볼라 출혈열이 크게 번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 에볼라와 관련해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했으며 국제사회도 지원에 나섰으나 희생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WHO는 12월 초까지 모두 1만70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00여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세계 각국은 에볼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국가에 의료인력과 군병력 등을 보내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IS 서방인 참수…미군 공습

알카에다의 이라크지부(AQI)였던 이슬람국가(IS)는 시아파 주도의 편파적 정책에 소외된 수니파를 규합하고 시리아의 수니파 무장단체를 흡수, 올해 초 순식간에 중동 정세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IS는 특히 서방을 침략자로 규정, 8월19일 미국 언론인 제임스 폴리를 시작으로 미국인 3명과 영국인, 프랑스인 1명 등 모두 5명의 참수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19개국으로 구성된 국제동맹군을 결성, 8월8일부터 IS를 공습했다. 공습 무용론 속에 지상군 투입 주장이 나오지만 미국은 이에 선을 긋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반대 시위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월 말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한 2017년 행정장관 선거안을 의결하자 홍콩 시민은 9월 28일부터 선거안 철회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며 도심 점거시위에 돌입했다. 한때 하루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등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시위 여파로 은행과 학교가 일시 휴업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12월 11일 홍콩경찰이 시위현장 캠프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75일간 지속한 시위 과정에서 200여 명이 체포되고 500여 명이 부상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7월 1일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태평양전쟁 패망 이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각의 의결만으로 1945년 패전 이후 견지해온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의 궤도를 수정해 입헌주의 저촉 논란을 일으켰다. 또 아베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를 이어갔다.

러시아 우크라 크림반도 병합

2월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 교체혁명이 일어나자 이에 반발한 크림 공화국 내 친 러시아계 주민들이 3월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결정했다.

러시아는 신속하게 합병 조약 체결과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3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 병합 안에 서명, 1954년 이후 60년 만에 크림을 병합했다.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냉전 붕괴 이후 정착된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규정하고 잇따라 러시아를 제재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지난 7~8월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이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스라엘은 50일간 가자를 공습했고 하마스는 로켓 포탄을 쏘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자에서는 2100여명이 숨지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70여명이 사망했다. 양측은 8월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어 지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0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국 경기·고용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해 양적 완화(QE)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했다. 2014년 첫 여섯 차례 회의에서 채권 매입액을 매번 100억 달러씩 줄이다 10월 회의에서 남은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행은 10월 말 시중 자금 공급량을 연간 약 60조~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미국 흑백 인종갈등 확산

올 8월 1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18세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을 맞아 숨지자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문제까지 연계되면서 경찰 공권력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공식 조사로 진정되는 듯하던 시위는 11월 24일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윌슨 경관을 불기소한 것을 계기로 폭력시위로 발전했다. 주요도시에서 경찰 공권력을 규탄하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폭력시위가 이어졌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

307년 만의 스코틀랜드 독립과 영국 연방 해체라는 격변 가능성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스코틀랜드 주민투표는 부결로 막을 내렸다. 9월 18일 투표를 치른 결과 독립 반대가 55.3%, 찬성 44.7%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독립보다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계속 남는 선택을 한 것이다. 독립투표 부결로 영국은 초유의 연방해체 사태를 피할 수 있었으며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잠잠해졌다.

말레이항공 실종·격추

말레이항공이 올해만 여객기 실종과 피격 사건 등 두 차례 대형 참사를 겪었다. 지난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MH370편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실종됐다. 남인도양에서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항공기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또 7월 17일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다 미사일 공격에 격추돼 298명이 숨졌다.

2014년12월15일~2015년 3월15일 제주도여행폭탄세일
나는제주여행을(2박3일) ₩109,000원에간다~
선박(씨스타크루즈)08:50목포항출발 ₩109,000원~ 항공(아시아나)15:40광주공항출발 ₩189,000원~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제주항도착직원미팅 /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 HOTEL:일반호텔(4~6인실)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솔잎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 석부작테마농원-감귤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불) · HOTER:일반호텔(4~6인실)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3일째 · 조식후-민,공예품전시장-조랑말체험 ·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불) ·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 · 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빙수산가도로 · 에코랜드-기차타고곶자왈(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출발 조식:호텔식 중식: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자유식

2015년 해맞이 제주성산일출봉
선상해맞이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
2014년12월30일~2015년01월01일 을미년(2박3일) 특별회원가₩220,000원
1일째 · 06:30광주역출발-08:50목포항출발 · 13:30목포항도착미팅-한라수목원-도깨비도로 · 용두암-용현(흔들흔들구름다리) 숙소:일반호텔(4~5인실) 조식:간편하게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2일째 · 조식후-07:30출발-08:40도착-09:00예약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약2시간30분) · 중식후-새연교(새로운인연을맺는곳) · 감귤타기체험-석부작테마농원 · 약천사-서커스월드(해피타운) · 숙소:일반호텔(4~5인실) 조식:호텔식 중식:고등어조림 석식:호텔식
3일째 · 2015년01월01일 조식후-05:30출발성산일출봉선상해맞이(유람선) · 섭지코지-에코랜드...기차타고자연원시림으로... · 중식후-제주민속마을체험 · 농수산판매장-해녀촌..석식(전복죽) · 16:00제주항도착및출발 · 21:30목포항도착 · 22:50광주역도착 조식:떡국 중식: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전복죽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무박2일, 1박2일 회원님을모십니다
기간:2015년 1월10일(토)~2월01일(일)까지 장소: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출 발 지: 광주역23:00집결,23:30출발
포함사항: 전용버스,입장료,줄낚시,조식,중식(상품권),여행자보험
회 비: 주중 ₩89,000원 주말(금,토,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08:00출발-남이섬-강원도화천군숙박
2일째 ▶ 조식후-산천어축제장-15:00출발-광주
포함사항: 전용버스,전일정입장료,숙박(모텔4인1실), 줄낚시, 식사4식(중식2회,석식1회,조식1회),여행자보험
회 비: 주중 ₩169,000원 주말(금,토,일) ₩189,000원

※문의처: 해외,국내,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북구효산로5 ☎062)267-8580 ★ 담당자:문병구H.P:010-3999-3226 FAX:062-267-8581